

불교 아동문학회 글짓기공모 문문 최우수상

나의 부처님

오 전 민(서울 은석국교 1년)

용서해주기 위해서 부처님 가슴은 넓으신가 봐요.

슬픈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부처님 귀는 커다란가 봐요. 나쁜짓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언제나 웃고 계시는 부처님 우리는 부처님이 좋아요.

불교 아동문학회 글짓기공모 문문 대상

새벽 예불

변 보 경(전남 광양제철국교 6년)

마디 이야기를 하면서 예불을 드렸고 졸린 눈과 누고싶은 마음으로 예불을 드렸지만 내가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인 새벽4시에 이렇게 부처님께 새벽 예불을 드린 것만으로 나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정말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겠다. 앞으로 남은 시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언젠가 내 눈앞에 계시면서 근엄하게 앉아 계시는 부처님 앞에서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게 내 머리속에 떠올랐다. 비록 친구와 몇

“땡~땡~땡~” 주지스님과 법사스님의 새벽 예불기도 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다. 오늘 새벽예불은 6학년과 5학년이 모두 참석하게 되었다. <중략>우리가 조금 늦게와서 늦게 예불을 드린 것 같다. 새벽 예불문과 반야심경, 여러사람의 혼을 위로하는 무상계 등을 하였다. 열불과 범종소리를 듣고 있자니 자

불교 아동문학회 글짓기공모 산문 최우수상

부처님과 하나님

경 주 선(서울 유석국교 4년)

나는 교회에 다니고 싶을 때가 있다. 그때까지만 불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반대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엄마께 말하였다. “엄마! 나 교회 보내주라! 동네 친구들 다 간단 말이야!” “안돼!”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셨는지 눈이 갑자기 커졌다. 난 어머니께 여쭙어 보았다. “우리 가족은 다 불교잖아. 그러니까 너만 교회에 다니면 어떡하니?” 나는 속상하여 아무말도 못 하였다. “... ..” 일요일날 교회 가방을 메고 교회로 가는 친구들이 부러워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나우야! 교회 다니는거 재미있니?” “아니! 난 오히려 너가 부러운데!” 말 한마디를 남기고 교회로 뛰어갔다. 그러자 엄마께서 뛰어오시며 말씀하셨다. “주선아! 엄마랑 목동 큰

절에 가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그때까지만 뉴그랜저가 내 앞에서 멈추었다. 난 놀래서 엄마뒤로 숨었다. “엄마야!” 번호판을 보니 2866이라고 되어있다. 아빠차였다. “에이~이 명칭이” 난 내 머리를 쳤다. “아야!” 절에 도착하였다. 절에는 사람들이 팔죽을 먹고 있었다. 나는 팔죽을 좋아한다. “나이스” 이제 생각해 보니 교회에서는 매일 무엇을 사준다고 하여 내 마음이 끌려간 것 같다. 아이스크림 같은 것 말이다. 내 생각이 잘 못된 것 같다. 나도 이제부터는 절에 가겠다. “엄마! 교회 안다닐래!” “왜~?” “팔죽 때문에” 스님도 팔죽, 손님들도 팔죽하고 웃으셨다.

만 화

법구경

* 세속의 장 *

불기품 처럼 세상을 보라
아지랑이 처럼 세상을 보라



이 향 원

Comic strip panels with dialogue bubbles. The dialogue discusses worldly matters, money, and the concept of 'Dongshim' (동심). Key phrases include: '어머! 외제차로 샀네', '아무래도 그럴 듯하게 보이려면 중고라도 외제차', '3천! 그것도 사정 사정 해서', '생할비도 안남기고 전세금 다 때려 넣은 거 아냐', '제대로 사업 하려면 투자가 우선이야', '정말 지하 열세방 금방 면할 수 있는거지?', '걱정은 하들 마! 일은 이제부터야', '가만있자 누구부터...', '아! 이 친구 공영달! 어리숙하고 좋아여',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공대리 누구 기다리는 건가?', '에, 저... 중학교 동창 녀석이 좀 만나자기에..', '20년이 넘게 소식도 없던 애가 드닷있어 무슨 일일까?', '여! 공영달! 어딜 보고 있어 어서 타', '이거 외제차 구나 이런 차 처음 본다', '잘하면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차 탈수도 있으니까 하하하', '오늘 그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려고 해', '비열한 짓을 하지 말라 게으름을 피우며 건드림 거리지 말라 그릇된 견해에 따르지 말라 세속의 근심거리를 만들지 말라', '넌 착하고 200만 투자해서 건강요 한 장만 사주고', '그 다음 네가 세사람 끌고 들어오면 판매 대금 50%가 장려금으로 지불되는 거야', '그 돈이 300이니까 본전 찾기도 100이 떨어져', '떨치고 일어나라 방일하지 말라 선행의 도리를 몸소 행하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든다', '그 다음 부터는 끌어들이는 대로 50% 그냥 먹는거니까 돈을 굶는거야', '그 맛 한 번보면 지금까지 월급장이 노릇한 것 억울할거다', '당당한 행동을 하라 나쁜 행실을 하지 말라', '날 보라구 나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라구',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든다', '200투자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1류로 살수 있다구 고생말고 쉽게 살아', '그런 돈도 없고 난 지금 생활에 만족해 그만 나가자', '이런 명망이 같은', '머저리 같은놈! 평생 월급장으로 고생해라', '물거품처럼 세상을 보라 아지랑이 처럼 세상을 보라 이화강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을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불교어린이 미술·글짓기대회 수상작 지상중계

“동심에 비친 부처님 세상”

곧게 물든 단풍이 산사를 단장한 가을날.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한 ‘불교아동미술잔치’와 까치마을 제1회 어린이 백일장, 한국불교 아동문학회 ‘전국불교어린이 글짓기 작품공모전’이 지난날 도선사와 용인가족공원에서 열렸다. 파란하늘 만큼이나 맑은 동심을 화폭과 원고지에 담아낸 이번 행사의 수상작들을 소개한다.



조계종 아동미술잔치 대상

유 나 영 (서울 신강국교 3년)

까치마을 ‘어린이 백일장’ 대상

우리는 불교가족

조 형 래(서울 은석국교 6년)

교정에는 감이 익어가고 모과 향기가 그득 배어있는 불교학교인 은석국민학교. 우리학교 안엔 법당이 하나 있다. 향이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법당에서 구경을 들거나 화가 났을 때 부처님을 뵈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우리 식구는 베식구인데 두개파로 나뉘어져 있다. 아빠와 누나는 기독교, 나와 엄마는 불교이다. 누나가 기독교가 좋더니 아빠가 따르셨고, 엄마는 산속에 조용한 절이 좋다고 내 편이다. 이제 남북도 통일하려 할

까치마을 ‘어린이 백일장’ 금상

이웃속의 부처님

오 수 진(서울 양국교 6년)

햇빛이 산 넘어 얼굴 내미는 밝은 일요일 아침 즐거운 맘으로 절에 간다. 그런데 이상하다 참으로 이상하다 그 이인 한대 풍 두대 풍, 세대 풍. 두 아이 한 아이는 한대 맞고 한 아이는 한대 풍. 난 난 곰곰히 생각하니 부처님은 법당엔 없다. 바로 우리의 옆에 작은 세상속에 있는 아름다운 눈빛의 우리다.

Large advertisement for 'Prayer' (祈禱) by Il-ta Kwon. It features a portrait of Il-ta Kwon and text promoting a book of prayers. Key text includes: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길', '49세 범보시용으로 좋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인간에 전해지는 인과응과 / IV. 속생으로 태어나기까지 / V.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합인혜택을 드립니다.', '전화: (02) 587-6612-3 팩스: (02) 586-9078'.